**잠0418 Note**

**◆Cross check : 삼하2304, 마0514, 빌0215**

Ω마05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작은 산 위에 세워진 성(城)이 숨겨질 수가 없으며,

삼하2303.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사람들 위에서 다스리는 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가운데서 다스리면서, 반드시 적법해야[짜디크,차디크: 짜다크(도덕적 또는 법정적 의미에서 올바르다,올바르게 만들다,깨끗케 하다,정결하다)에서 유래, 공정한, 합법적인, 의로운] 하느니라.

삼하2304. 그리고 그는 태양이 떠오르는 때의 새벽의 빛과 같이, 바로 구름들이 없는 새벽의 빛과 같이 되어야 하며, 비온 후의 선명한 비춤에 의해서 땅에서 솟아나는 부드러운 풀과 같이 되어야 하느니라,

빌0215. 그러면 너희가 탓할 것이 없고, 해(害)가 없기에 곧, 너희가 이 세상에서 빛들로서 비추는, 굽어지고 비뚤어진 민족(게네아:세대,시대,민족,종족,가족,일족) 사이에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기에(에페코:굳게 잡다,보유하다, 못떠나게 붙들다,주의를 기울이다,조심하다), 꾸짖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니라,